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0년 11월 조사 -

2020년 12월 3일
 주식회사데이터코쿠데이터뱅크 데이터솔루션기획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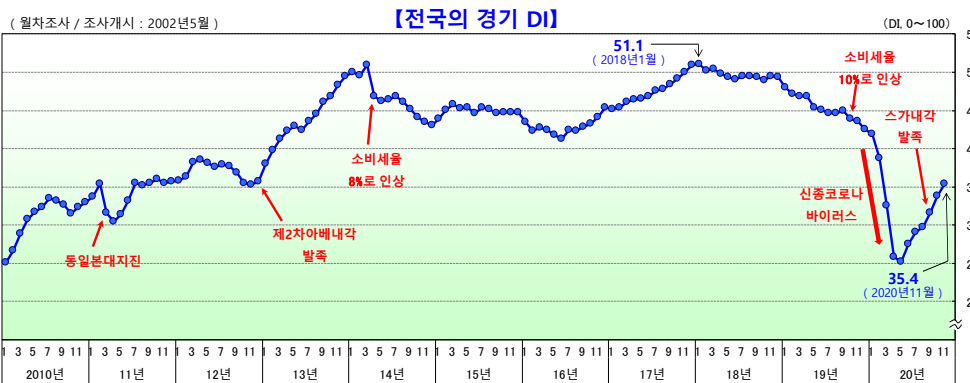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회복되나 감염 재확대로 하순에 둔화

~ 감염 확대 방지에 따른 경제활동 억제에 우려 요소 ~

(조사대상 2만 3,686사, 유효회답 1만 1,363사, 회답율 48.0%,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0년 11월의 경기 DI는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1.6포인트)인 35.4로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하순에 걸쳐 약간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회복이 계속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당장의 감염 재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나 완만히 상향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 10개 업계 중 『서비스』 『도매』 『제조』 등 9개 업계가 플러스, 『금융』 1개 업계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각종 시책의 효과도 있어 관광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 『호쿠리쿠』 『도카이』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플러스, 『홋카이도』가 악화로 나타났다. 지역 내 주요 산업의 생산·출하량이 상향하는 가운데 IT투자는 활발하게 나타났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재확대 영향이 『홋카이도』 등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모두 6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다.



< 2020년 11월의 동향 : 회복 >

2020년 11월의 경기 DI는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1.6포인트)인 35.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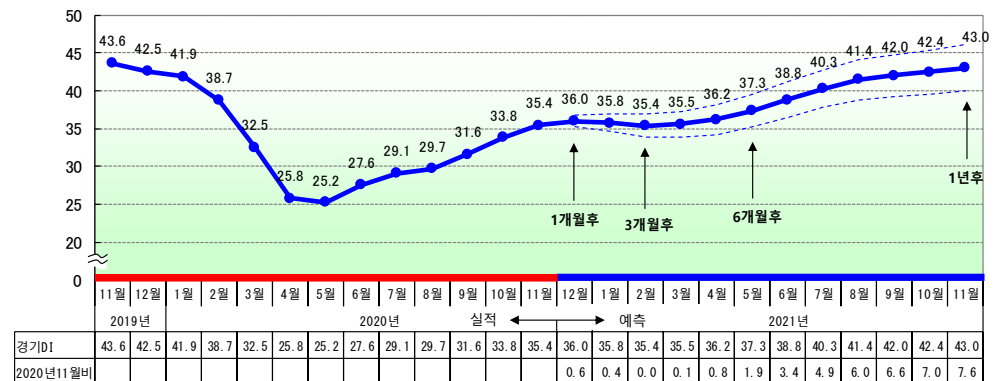
11월의 국내경기는 주가가 29년반만에 고가를 갱신한 한편 각종시책에 인한 사람의 이동 활성화 등으로 관광관련을 중심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또한 기업의 설비가동을 및 생산·출하량이 상향해온 것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자택 내 소비 및 IT 투자 등은 계속해서 활발하였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재확대 수가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각종 시책의 일시정지 및 자체요청이 나오는 등 체감경기는 하순에 걸쳐 서서히 둔화되었다.

국내경기는 하순에 걸쳐 약간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회복이 계속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일시정체하나 완만히 상향 >

향후 1년 정도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와 경제활동 재개의 밸런스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연초 이후 당장의 감염 재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자체요청 강화로 경제활동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계상여의 감액 및 고용환경 악화 등으로 소비자의 절약지향이 높아질 우려요소도 있다. 한편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하는 수요의 창출이 기대되는 한편, 5G의 본격적인 보급 및 방일객 수용 재개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백신 개발의 진전도 기대된다.

향후의 경기는 당장의 감염 재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나 완만히 상향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며, 예측치±2표준편차로 산출